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조선시대 여자 복식표현연구

김현진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Women's Costume Representations in Chosŏn Dynasty by the Approach of Semiotics

Hyun-Jin Kim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2004. 1.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eature and phenomena of women's costume in Chosŏn dynasty by the approach of semiotics. In order to do so, F. Saussure's linguistic symbol theory, C. Peirce's conception on semiology theory and cultural semiology of R. Barthes were used as tool to analyse traditional women's costumes in Chosŏn dynasty. And I choose basic conceptions based on their semiotic theory, which were langue & parole, denotation & connotation, paradigm & syntagm, code, and analysed structure of sign, communication though the non-language. The fashion of the Chosŏn dynasty contains various meaning as sign symbol system and makes the communication possible as it is mentioned above. We may understand the sign symbol system described in the fashion sign by analys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peration of sign on the basis of social, political, and idealistic background of the times, to understand the polysemey quality of the fashion.

Key words: Semiotics, Sign symbol system, Traditional women's costumes; 기호학, 기호상징체계, 전통 여자복식

I. 서 론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며,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명과 함께 발생·발전되어 왔으며, 또한 언어기호학으로부터 출발한 현대 기호학은 문화기호학, 사회기호학, 비구두(非口頭)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등으로 확대·발전해 왔다.

즉, 기호는 우리 삶의 제반이 되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환경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기호학은 모든 문화적 과정들을 커뮤니케

이션의 과정으로 연구하며, 문화적 과정들의 심층속에 있는 체계와 법칙들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김치수(1998)는 말하였다.

사회적 산물인 복식은 표상적 가치가 신체에 표현되어진 표상적 문화현상(表象的文化現像)으로, 배경이 되는 시대나 지역적 상황의 사회, 문화, 이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문화현상으로써 사회, 정치, 사상, 역사 그리로 가치관의 간접적 상징체인 복식은 사회구조 속에서 객관화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일차적인 기능 외에,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alefato(1987)는 언어 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기호체계는 사회 단편을 신체의 외관에 대한 모드나

관습, 스타일, 사물들로 구체화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비언어적인 기호체계로서 일차적이며 기능적인 부분 외에도 미적(美的) 측면과 상징 표현과 의사 전달의 성격의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복식과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라는 판단적 반응을 주는 무언의 의사전달체(nonverbal communication)로, 기호체계인 복식은 착용자에 대해 사회적 지위, 계급, 정치적 입장, 경제력, 인종 등을 나타내며, 인간은 복식을 기호, 상징체계의 수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며 타인이나 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로서 사회 현상 속에서 인지되는 복식은 마치 언어나 문자처럼 상호 의미전달이 가능한 것이며, 그 복식 표현의 분석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사상적 배경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복식은 일차적인 기능의 수단뿐만 아니라 상징체로서, 수행되어온 다양한 상징표현의 개념은 전통 복식 속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통복식 또한 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경제 등의 사회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던 조선 시대 여자복식을 고찰함에 있어 사회적, 개인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체계로서, 복식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기호학의 역사적 배경

문명의 기원과 더불어 시작된 기호의 문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철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어거스틴을 거쳐 로크에 이르기까지, 기호학 패러다임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서구 사상의 유구한 전통을 이루어왔으며, 이후 기호학에 있어 학문적 가능성의 본격적인 제기는 현대 기호학의 직접적인 기원을 이루고 있는 소쉬르(F. Saussure)에 이르러서이다.

소쉬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학(semiologie)을 언급하며, 기호학을 기호 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 기호를 가장 중요한 기호체계로 보았다. 한편 19세기 말, 미국의 대표적인 기호학자인 피어스(C. Pierce)는 기호학을 기호론(semiotics)라 지칭하고있는데, 이에 대해 귀로드(P. Guiraud)는 소쉬르

의 이론은 ‘기호의 사회적 기능’을 퍼어스는 ‘기호의 논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차이로 보고 있으나 이 두 학문은 단지 용어의 내포적 의미(connotation)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

소쉬르는 기호학을 ‘전달의 기호학’과 ‘의미작용의 기호학’으로 보았으며, 이중 전달의 기호학은 뷔이상스(E. Buysse)와 프리에토(L. Prieto)로 계보를 이어가며, 전달 의도가 분명한 신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의미작용의 기호학은 이후 톨랑 바르트(R. Barthes)에게로 계승되어져, 영화, 의상, 광고, 식품 등 의미작용을 발휘하는 모든 사회 문화 현상으로 기호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소쉬르에게서 영향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나아간 기호학은 기호에 대한 언어학적 성찰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에서 이론적 출로를 찾고 있다.

2. 기호학의 주요 개념

1) 랑그와 파롤 (langue / parole)

랑그와 파롤은 언어활동에 있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두 측면으로, 소쉬르는 화자가 사용하는 규칙의 목록으로서의 랑그(langue)와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개인적 행위로서의 파롤(parole)을 구분한다.

랑그는 언어활동의 코드로서 사회적 측면에서 같은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인간 사이의 거대한 제약인자, 제약의 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그 랑그를 구사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소통하려는 개인은 이 공동체의 제약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도리어 그 제약에 순응해야 한다.

반면 파롤은 이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 행위로, 언어를 구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이며 말을 건네는 인간의 구체적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속하는 언어공동체의 언어 테두리 속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나 다양한 변이체들을 구사한다. 다시 말해서 파롤은 기호를 창조하지는 못하고 코드의 체계와 그 법칙에 따라 기호를 결합시킬 따름이다. 문화체계에 있어서 랑그와 파롤의 경우 자동차 체계에 있어서의 랑그는 각 부품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대의 자동차라면, 파롤은 구매자의 취향인 색상이나 모델이 해당된다

이러한 랑그와 파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내포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두영(1995)은 보았으며, 파롤은 다른 랑그가 개인에게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역시 구체적이다.

2) 기표와 기의 (signifiant / signifie)

언어를 기호체계로 보는 소쉬르의 언어기호는 음성 표현의 측면인 기표(signifiant)와 의미 내용적 측면인(signifie)의 불가분적 관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기호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의 자의적 결합체로서 간주하여 어떤 대상을 의미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소쉬르는 보고 있다.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켜 기호를 만드는 과정이나 분리하여 기호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 모두 의미작용이라 하며, 기호의 특성인 자의성(恣意性)은 기표에 결부되는 기의의 본래성 특성이 아니라 오직 관습(convention)에서, 즉 사회적 제약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단 규약이 한 번 제정되면 그 체계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관습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필연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denotation / connotation)

외연적 의미(denotation)와 내포적 의미(connotation)의 대립적 개념은 엘름슬레우의 용어로서, 외연적 의미란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있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직설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호한 대가 없는 것으로 대개 사전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반면 내포적 의미는 사람이 그 기호에 덧붙이는 암시적 의미로 주관적 느낌을 나타낸다. 즉 김경용(2000)은 내포적 의미는 해석자가 임의로 매기는 주관적 가치로, 기호가 표상하는 대상체와 연관된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같은 기호라도 내포적 의미는 문화마다 다르며, 특정 문화 속에서 습득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는 의미 작용의 두 가지 상반된 양태이면서도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을 이룬다. 외연적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포적 의미이다. 모든 기호는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의존도를 달리한다.

4) 계열체와 통합체 (paradigm / syntagm)

계열체는 기호 사용자로 하여금 기호 복합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호들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으로, 공통성 있는 기호의 묶음(a set of signs)을 가리킨다. Fiske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위해, 우리는 계열체들로부터 어떤 특정 기호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행위가 의미를 일으킨다고 하였다(김경용, 2000).

반면 통합체란 계열체에서 선택한 기호들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호 복합체로, 코드, 메시지, 이야기, 지식 같은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체란 선택된 여러 다른 기호들의 조합이다. 계열체의 주개념은 <선택>임에 비해서, 통합체의 주개념은 <조합>이다. 즉 통합체는 순서나 구성되어질 수 있는 것들과의 관계로 과정들 사이의 차이인 반면, 계열체는 이러한 순서나 전체들로부터 선택되어진 기호 집단과 관계로 과정들 속의 아이템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Malcolm Barnard, 1996).

문화기호 중 가구의 경우 가구 전체의 배치는 통합체에 해당하며, 침대의 계열체, 테이블의 계열체, 의자의 계열체, 옷장의 계열체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계열체에서 선택 조합하여 전체의 가구배치가 이루어진다.

5) 코드

Malcolm Barnard(1996)는 코드를 기표와 기의를 연결하기 위해 통용되는 법칙의 그룹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기호의 복합체로서 그 안에 기호의 조직 원리를 품고 있는 코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호뿐만 아니라 그 기호를 서로 연관시켜 주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원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는 비밀스런 구조로 문화 속이나 문화 구성원의 마음속에 숨어있어 쉽게 알 수 없으나, 코드를 모르면 기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코드는 기호의 제작과 해독을 위한 원리로, 사람들이 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습화된 기호 사용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관습이 내포되어 있는 코드의 이해 없이는 기호의 정확한 조립과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코드는 우리 문화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기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3. 기호의 구조

기호학의 원칙은 사회 현상을 기호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소쉬르는 이러한 기호를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있다. 즉, 『일반언어학』에서 소쉬르는 의미의 운반체이며 외부세계가 공급하는 기표(signifiant)와 정신적이며 추상적 개념의 내부세계가 공급하는 기의(signifie)에 의해 생성된 기호가 표상세계로 편입되는 총체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소쉬르가 기호학을 심리적이면서 사회적인 것을 기원으로 하여 이원적(dyadique)으로 분석한 반면, 피어스는 삼원적(triadique) 측면에서 기호를 분석하였다. 피어스는, 논리주의적 입장에서 기호를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3항적 관계로 보았으며, 이때 기호는 일반적으로 그가 중재할 수 있는 2가지 실제 사이의 중재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어스는 삼부모형에서 어떤 다른 것을 의미있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기호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기호의 표상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호는 물체를 대표하여 나타나며, 해석체는 해석자나 기호의 사용자가 아닌 기호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개념으로, 따라서 만들어진 기호는 대상체를 대표함과 동시에 어떤 정신적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호는 실제 대상체를 잠적시키며 대상체를 대표하고, 동시에 해석체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4. 기호작용

Morris는 기호작용(semiosis)이란 어떤 유기체에 어떤 것이 기호로 성립되는 기호과정(a sign-process)으로 설명하였으며 세보크는 기호작용을 메시지 교환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피어스의 기호작용이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임에 비해 세보크의 기호작용은 인간과 다른 유기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이처럼 기호는 해석자의 마음 속에 들어온 기표가 개념적·정신적 이미지인 기의를 찾게되어 기호로 성립되는 사고작용이다.

에코(Eco, 1976)나 세보크(Seabeok, 1991)는 기호작용을 의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인 기표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같은 의미작용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쌍방이 참여하는 것이며, 반면 의미작용은 기표와 기의를 결합하여 기호를 만들어 내거나 기호에서 기표와 기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의미가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에코는 의미작용을 커뮤니케이션보다 고등한 기호작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탈 커뮤니케이션 또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코드화를 필요로 하지만, 의미작용은 코드화와 탈코드화를 모두 포함한다. 탈기호화는 통상적 기호가 갖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새로운 질서 위에서 재조립하는 것이다.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는 의미작용의 두 가지 상반된 양태이면서도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을 이룬다. 외시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함축의 의미이다.

기호의 자의성 때문에 기호는 다중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중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내포적 의미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해석자 간의 다양한 차이가 발생되며, 그 의미는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III. 조선시대 여자복식의 기호상징체계 고찰

1. 복식의 기호체계 분석

Lurie(1986)는 그의 저서에서 복식을 하나의 기호언어이며, 무언의 통화체제로 보았으며 이러한 의복 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고 있다. 복식은 그 자체로써 혹은 착용자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기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써 작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미적 기준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를 반영하며, 기호를 코드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관이나 사상을 해독할 수 있게도 하며, 따라서 복식을 통해 신분, 계층, 직업, 지위, 가치관, 이념 등의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기호체계인 복식 또한 소쉬르가 언급한 언어 기호처럼 감각으로 지각되는 소리면을 기표라 부르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뜻의 면을 기의라고 하는데, 복식에서는 감각으로 지각되어 보이는 면인 복식의 형태를 기표라 하겠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면을 기의라 할 수 있다.

조진숙(1996)은 복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기호들 중의 하나라고 볼 때, 복식의 착용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기호를 선택하고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은 상대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식의 착용은 기호의 선택이며, 우리는 복식 표현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신분, 계급, 가치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의미 형성 과정을 통한 문화적 상징물의 하나인 복식은 기호언어이며 비언어(非言語)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시대의 문화 활동이며, 문화 산물인 복식은 그 배경이 되는 문화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집단적 의식에 속하는 관습과 규범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1) 복식의 랑그와 파롤

복식체계의 경우에 있어 랑그는 치마, 바지, 윗도리와 같은 상하의 콤비네이션의 대립을 말하는 것으로, 복식의 품목들과 사회제도 속에서의 관습이나 규범에 의해 복식을 입는 격식을 의미한다. 반면 파롤은 주체가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랑그의 코드를 사용하는 선택과 개별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상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으로 옷 입는 형식, 색깔, 치마길이, 바지 폭 등과 같이 개인이 실제로 입는 복식을 말한다.

랑그의 경우 코드는 사회적 작용으로 생겨난 관습화된 기호 사용의 패턴들로, 개별적 메시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반면 파롤은 랑그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개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코드들의 강제적인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즉, 사용자들은 의무적인 관계 체계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한다고 예코(2000)는 하였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용인하는 복식 또한 이러한 강제적 성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복식에서는 강제적 성질이 크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식의 강제성은 사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일반화된 복식 기호를 관습적으로 따르고 사용하게 되며, 개별성을 표현하는 파롤에서도 기호사용 패턴이 유사하게 보여진다. 이것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사회규범이나 관습의 틀이 고정적이며 강한 힘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적 용인의 폭도 적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수임(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위한 집단적·사회적 제약 체제인 랑그는 그 사회의 사회, 정신문화의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데, 조선시대 복식의 랑그 또한 유교, 실학, 음양오행 사상과 같은 그 시대의 많은 사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전통 복식에 있어서의 랑그는 현대 복식과는 달리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복식의 착용이나 격식 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적으며 사회적 규약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착용하는 복식 형태인 파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여자일반 복식에 있어 랑그는 우선 신분에 따른 규범을 말할 수 있다. 여자복식은 상하존귀에 관계없이 치마·저고리를 기본으로 착용하고 있으나, 신분 계급에 따른 복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식 차이는 복식금제로 철저하게 규제되고 있었으며, 내외명부(內外命婦)와 반가녀(班家女)들은 지켜야 할 격식과 예의법절에 있어서 복식의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랑그가 많은 반면, 민서녀(民庶女)들은 복식 금제와 같은 사회적인 복식 제약 차원의 랑그가 많이 존재하였다.

저고리의 형태에 있어, 상류 계층에서는 삼회장저고리나 반회장, 민저고리를 모두 착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시집은 신혼 초에는 삼회장저고리를 입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회장저고리나 민저고리를 입기도 하였다(유송옥, 1998). 서민여자의 경우는 반가부녀와 모양은 비슷하나 삼회장저고리는 입을 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민저고리에 고름만 이색(異色)으로 달아서 입었다. 기녀의 경우 사회 계약체인 랑그에서는 삼회장저고리를 입을 수 없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입혀지고 있었다.

치마의 복식 규제에서도 랑그와 파롤이 보여지는데,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반가용은 13폭, 서인용은 12폭으로 제한하였으나, 실제 파롤에 있어서는 15, 16폭에 이르는 넓은 치마가 착용되었다. 문양, 색상규제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또한 복식에 있어서의 랑그로 볼 수 있다. 또한 유교의 형식주의는 의복의 착장법에도 영향을 끼쳐서, 삼작 저고리나 7·8겹의 하의 속옷 착용, 외출시 쓰개치마의 착용 등과 같은 랑그를 형성하였다.

조선시대 여자복식에는 유교관념에 의한 윤리·도덕관과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음양오행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복식착용에 있어서의 집단적 가치 체계인 랑그는 사회가 만든 제도와 관습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 복식 행위인 파롤은 의복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복식의 기표와 기의

복식에서의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형태, 색상,

문양, 직물의 재질 등은 물리적인 기표라 할 수 있으며 비감각 측면으로 복식소재 혹은 디자인 요소가 함축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은 기의로 볼 수 있다. 이때 추상적 개념인 기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된다고 나수임(1996)은 보았다.

복식 기호는 복식공동체 마다 관습적으로 착용하는 복식표현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복식은 기표와 기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진다.

전통복식에 내포되어진 기의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 음양오행사상, 실학사상 등이 장식적 요소인 형태, 색상, 문양과 착장, 구성 등에 영향을 미쳐 성리학적인 예의범절, 사회적 상하계층의 존귀함과 음양의 상생과 주술적인 표시기능 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여성의 기본 복식의 형태는 상하존귀(上下尊貴)의 구별없이 입혀짐으로써 여복에 내포된 의미는 복식의 형태 자체보다는 복식 구성 요소인 색, 문양, 직물이나 착장자의 신분이나 착용목적 등에 따라 같은 형태의 의복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복식의 경우 어떤 신분이 어떤 목적으로 착용한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식의 각각의 형태의 의미는 착장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즉, 착장 형태는 시대, 계급, 신분 등을 상징하기도 하며, 착장자의 관념, 가치, 사상과 같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복식기호이다.

전통복식의 기의를 내포하고 있는 요소들은 언어 기호학에 있어서의 형태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복식의 경우에 형태소란 최소의 의미를 지닌 복식표현으로서 더 큰 복식표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한명숙(1987)은 복식의 형태소를 기본형태소인 길, 깃, 소매, 길이, 폭으로, 초분절 형태소에는 재료, 색, 문양으로, 부가 형태소는 의복의 디테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의복 요소들은 기호로서 기의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형태소와 부가형태소의 기표에 나타난 기의 또한 유교사상, 실학사상, 음양오행사상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초분절 형태소 또한 기의를 형성하는데, 복식의 재료가 되는 직물과 문양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식금계와 같은 정치, 사회적 영향 속에서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색과 문양은 의복의 초분절 형태소로서 다의적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다의적 의미는 기호에 있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의 자의성의 결과이다. 문양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이는 다

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호로,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기호로 바꾸려 하지 않고 사용자가 나름대로 코드를 적용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혼례복에 사용된 봉황의 문양은 혼례의 길상적 의미와 부부화합의 의미로 해석하는 반면, 궁중의례복식에 사용된 봉황은 신분의 권위적 상징으로 고귀함과 자애로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전통복식이 가지는 다의적 성격을 현대복식에서 보여지는 복잡 다양한 의미라기보다는 음양오행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져, 의미해석에 있어 모호성은 비교적 적다.

복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형태소는 단순히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복식에서처럼 사상과 같은 사회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기표로서 작용하여 기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식 기호에는 많은 기표가 있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복식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복식체계에 있어 복식기호 또한 기호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호의 추상적인 기호해석을 하게 된다. 복식이 가지는 상징은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은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동시에 주관적인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복식은 하나의 실체로서 외연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나 체계와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또한 조형예술의 미적 대상의 측면에서 복식을 본다면, 뵐플린(H. Wofflin)이 저서인 『미술사의 기초 개념』에서 주장한 것처럼 표현양식은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내용의 이중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식에 있어서도 형식적이며 외형적인 미의 외연적 의미와 내용적이며 내재적인 내포적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외연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모호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내포적 의미는 주관적 가치에 의한 것으로 인간 무의식에 속함으로 의미를 잘 모르며, 다의적이며 따라서 모호성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복식 또한 의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측면까지도 반영하는 기호체계로서 모호하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춘희(1999)는 이러한 다의적 의미의 이해는 복식을 하나의 대상으로 완전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 수용자의 해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기체적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기호가 가지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표 1> 기본 형태소와 부가형태소의 기표와 기의

기표	기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깃	상의 의복인 포와 저고리류에 있어서 목 부위를 감싸는 구성요소.	폐쇄성과 유교적 의미의 단정함. 은폐와 정숙함의 상징.
고름	상의 앞길을 여미기 위해 가슴근처에서 매는 2개의 끈.	자색사용으로 장수와 부귀의 상징적 의미. 벽사의 의미로 부적과 같은 기능. 다복과 자손의 번영. 여미의 기능성, 활동시 여유를 주는 실용성과 장식성의 의미.
동정	저고리나 두루마기 깃 위에 덧댄 백색감.	청결, 순결한 이미지. 오염방지와 교체가 용이한 기능성.
거들지	옷의 소매부리에 덧대는 흰 형깃.	청결, 순결한 이미지. 효율성과 미적효과의 상징. 양가집 부인이 착용한 당이나 삼회장저고리의 소매부리. 거들지는 예복의 표시.
무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구성 의복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나 트임이 있는 곳에서 활동과 착용의 편리를 위해 덧댄 부위.	몸을 늘리는 수단. 곡선무는 입체감을 살리고 활동성을 높인 의미. 봉제상의 편의성 증대. 이색으로 댄 무는 장식적 효과.
트임	의복에 있어 트여진 부분.	인체와 의복 사이에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해 주고 나아가 외부와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다소의 미완성된 묘미와 활동의 자유를 주어 멋스러운 심미적 요소. 기능성, 노출적 의미.

상호 주관적이거나 해석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문화배경과 종교, 경제, 사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각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전통복식에 있어서도, 외연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형식미(形式美)에 해당되는 구성, 형태, 문양, 직물, 명칭 등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내포적 의미는 사상, 종교, 계급, 문화, 사회적 배경 등 무의식적 측면까지도 내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복을 설명하기 위한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는 나뉘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가지의 의미들은 동시에 이해되어야 한다.

4) 복식의 계열체와 통합체

계열과 통합체의 차이는 의복에 있어서의 의미 발생도 설명하도록 요구되어진다. 통합체적 차이는 의복 구성을 위한 아이템 조합의 차이인 반면 계열체적 차이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Malcolm Barnard(1996)는 의복의 계열체와 통합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통합체적 관계에 있어 요소들간의 관계로 'this and this and this'의 관계인 반면, 계열체적 관계는 하나의 의복 아이템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는 선택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형태들 간의 차이로, 'this or this or this'의 관계이다.

하나의 복식 통합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를 선택하여 조합하는데 이 특정한 방식이란 바로 관습적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차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에 적용받는데, 여자 기본 복식인 치마와 저고리의 착장에 있어서 의례용으로 삼회장저고리를 선택한 경우 치마또한 의례용에 적합한 스란치마나 대란치마가 선택되어질 것이며, 누비저고리와 홑겹의 치마나 의례용 치마를 선택하여 조합하지는 않는다. 이것 또한 문화의 관습 속에서 형성된 원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여자복식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것은 사회의 관습적 원리에서 벗어나서 조합된 통합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숙하지 못한 형태의 의복을 일반부녀자가 계열체에서 선택하여 의복으로 조합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열체와 통합체의 관계는 사회나 문화와 같은 배경 속에서 관계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복 아이템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우리 전통복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계열체와 통합체의 개

넘은, 전통적으로 한 벌의 의상을 이루기 위한 일반 여성복식에 있어 저고리, 치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외의(外衣) 등등의 의복들이 선택, 조합되며, 조선시대 복식에 있어 이러한 선택과 조합의 원리는 현대 복식과는 다르게 관습적인 원리를 보다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자 복식은 각 복식품목으로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 속옷류, 신발류, 장신구류로 구성되어진다. 이런 각각의 계열체중 각기 다른 복식 계열체를 조합하여 전체의 의복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는 통합체적 구조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신분, 계급 등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 여자복식의 구조분석에 있어 계열체와 그의 조합에 따른 복식 착용은 다음 <표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계열체에서 선택된 의복은 관습적 원리에 의한 조합을 통해 통합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조선시대 여성은 자신의 신분계급과 착용 목적 등에 알맞은 의복을 선택·조합하게 된다. 즉 조선시대 여자는 상·하의의 속옷과 겉옷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외

출시나 의례용 복장의 경우 알맞은 외의 선택하여 착용하며, 신발과 장신구를 선택한 후, 각각의 계열체에서 선택한 의복을 조합하여 착용한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text{조선시대 여자복식} = \left[\left(\frac{U}{D} \times \frac{u}{d} \right) + \text{OG} \cdot \text{AC} \cdot \text{FW} \right]$$

조선시대 여자복식의 품목의 계열체를 통합적 관례로 조합하면 의미표현이나 조합의 방법에 따른 의미차이로 의복을 착용한 여성의 계급, 신분, 연령을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형태의 상하의 속옷과 치마 저고리를 입었더라도, 외의를 당의를 입었나 장옷을 입었나에 따라 의례용 차림인지 외출용 차림인지가 결정된다. 또한 같은 차림새를 한 경우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비녀를 착용할 것인가와 땡기 차림새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과 같다.

5) 복식의 기호작용

(1) 커뮤니케이션과 탈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란 기호를 사용하여 유형·무형의

<표2> 조선시대 여자복식의 계열체

계열체	분류	날말
상의 UG	겉옷(U)	저고리류
	속옷(u)	가리개용 허리띠, 속적삼, 속저고리
하의 DG	겉옷(D)	치마류(의례용 포함)
	속옷(d)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속바지, 속치마, 무지기치마, 대습치마
외의 OG	의례용	적의, 노의, 활옷, 원삼, 당의 등
	쓰개류	몽수, 너울, 명사, 장옷, 쓰개치마, 천의 등
신발류 FW		궁혜, 당혜, 운혜, 짚신, 나막신 등
장신구류 AC		땡기, 비녀, 떨잠, 뒤꽂이, 화관, 족두리, 노리개 등

<표 3> 일반 언어 기호학과 복식 기호학에서의 기본개념

	일반 언어 기호학	복식 기호학
랑그와 파롤	랑그-화자가 사용하는 규칙의 목록	랑그-아이템 간의 콤비네이션
	파롤-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적 행위	파롤- 개인적 취향
기표와 기의	기표-음성 표현의 측면	기표- 시각영상(복식형태)
	기의-의미 내용적 측면	기의- 복식의 개념, 의미
외연적 의미 내포적 의미	외연적의미-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 내포적의미-주관적이며 암시적 의미	
	통합체-조합의 원리 계열체-선택의 원리	
통합체, 계열체	통합체- 문장전체	통합체- 양복의 옷차림
	계열체- 주어의 계열체, 동사의 계열체, 목적어의 계열체 등	계열체- 양복의 계열체, 셔츠의 계열체, 넥타이의 계열체 등

정보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전달(transmission), 공유(share)하는 과정이다. 의복 또한 집단의 가치와 정체성의 의사전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은 메시지를 하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매체이다. 착용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의 수단으로 의복을 입는다. 또한 Fiske는 기호학을 개인을 사회나 특정 문화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사회 작용이라 정의하였다. 이것은 기호의 성격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사회적 동의에 의한 관습적 성격으로 인해 복식을 포함한 기호사용에 있어 개인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복식에 있어 의복 코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은 비교적 명확히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중년여성의 남치마 착용은 남편이 있음을 의미전달하며, 저고리의 남색 끝동은 남편이 있음을, 자주고름은 자식이 있다는 표시이다. 또한 노랑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착용한 모습이나, 땀은 머리의 형태는 미혼녀임을 의미하며, 가슴을 내놓은 착용형태는 아들을 낳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중첩하여 입은 의복의 형태나, 가슴을 여며입은 저고리의 깃모양 그리고 쓰개치마의 착용을 통해 자신의 정숙성을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이다.

복식의 형태, 색상, 착용형태 등은 많은 정보를 내포,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기호체로서 착용자의 사회적 힘(social force)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로, 의복에 있어서도 착용자의 사회적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할만한 현상은 복식을 통해 당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의복에 있어서의 당파의 구분은 자신의 소속 신분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회적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작용력까지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여자복식은 기호 상징체로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용되었다.

조선시대 복식에 있어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작용은 단일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둔다. 이것은 신분이나 계급과 같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의미를 의복을 통해 전달하려 함이며 수신자인 관람자는 그 의미를 해독하는 데 별 어

려움 없이 기호를 해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지배층의 복식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복식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보가 아닌, 개인의 감정이나 미의식을 의미 전달하는 것으로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송·수신자 사이에 독립된 의미 창출이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 내부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의복이 사용됨에 따라, 정보 전달에 탈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의미전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복식을 통한 착용자 개인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으로, 착용자와 관람자 사이에 의복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복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때로는 다의에서 오는 모호함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

(2) 의미전달과 유행체계

복식에 의미가 전달되고 공유된다는 것은 복식현상에 있어서는 ‘유행’의 특성으로 보여진다. 유행의 현상을 기호학적으로 보면 심미적 코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유행은 알려진 코드를 공유하고 즐기며 머물다가 변화된 다른 코드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미적 코드는 외연적 의미보다는 내포적 의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의복과 복식의 유행 현상의 이해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그 속도와 주기정도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여자복식 또한 유행체계를 지니고 있다. 조선전기의 유행은 상류층의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기에는 하류층으로부터 역으로 복식이 유입되어 유행되어진다. 이러한 유행은 모두 사회적 다수가 의복 코드를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결 론

조선시대의 복식은 현대의 복식보다 엄격하고 변화의 속도 또한 느리며 반복적이지만 모든 의복이 그러하듯이 전통복식 역시 미학적 동기를 주 토대로 하고 있는 기호체계이다. 또한 전통복식인 조선시대 복식은 의복이 기호로서 갖는 보편적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의복 현상과는 구별되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I장에서는 기호학의 이론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기호학 이론을 토대로 조선시대 여자복식을 분석·고찰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식에 있어서 사회적 집단계약체인 랑그는 관습적, 금제적 복식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식금제와 복식 풍속이 이에 속하며, 파롤은 실제 착장자 개인의 복식을 의미한다. 엄격한 복식제도를 가진 조선 시대에 있어 랑그의 강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파롤에서도 기호사용 패턴이 랑그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기에 사회가 변화하면서 파롤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

2. 복식은 기호로서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는데, 복식자체가 기호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색, 문양, 직물, 깃, 고름 등과 같은 복식 요소들이 기호로서 기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착장방법이나 착장자의 착장태도에 의해 기의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표가 가지는 기의에는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가 있는데, 복식 기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기 위해서는 내포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또한 복식기호는 계열체적, 통합체적 관계 속에서 선택, 조합됨으로써 의미의 차이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는 관습적 원리에 의한 구성으로 조선시대 복식에 있어 관습적 원리는 비교적 엄격하다. 또한 복식기호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이때 형성된 의미 차이로 착장자의 계급, 신분, 연령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text{조선시대 여자복식} = \left[\left(\frac{U}{D} \times \frac{u}{d} \right) + \text{OG} \cdot \text{AC} \cdot \text{FW} \right]$$

4. 복식은 비언어적 기호체계로서 시지각적 대상을 통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의미전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메시지는 전달이 되며 복식 기호의 의미가 공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전달이 폭넓게 전파되어 같은 의복 코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복식의 유행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식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유행 현상도 일종의 기호의 의미전달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행현상

은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에는 지배계층의 신분, 계급을 모방하는 하향전파의 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후기에는 기녀의 신분과 부를 모방하는 복식형태가 널리 유행하는 상향전파 현상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용. (2000).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치수. (1988).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나수임. (1996).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I - 조선시대 혼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
 나수임. (2000).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II - 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
 소두영. (1995). *문화기호학*. 사회문화연구.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수신사.
 이선재. (1992). *유교사상과 의례복식*. 아세아 문화사.
 이수현. (2002). *한복치마 착장미의 역사적 고찰*.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춘희. (1999). *현대 복식에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진숙. (1998).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복식문화연구*, 4(3).
 채금석. (2000). 한국 전통복식의 정신 문화연구 -포(袍)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
 한명숙. (1997).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朝鮮王朝實錄. 第13券, 成宗 2年 12月, 第14券, 成宗 3年 1月.
 Allison Lurie. (1986). *의복의 언어(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역. 경춘사.
 Calefato, P. (1987). *Fashion Theory*, 1.
 Eco, U. (2000). *기호: 개념과 역사*. 김광현 역.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Malcolm Barnard.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New York: Rutledge.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1988).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도서출판 까치.
 Saussure, F. (1974). *일반언어학 강의*. 오원교 역. 형설출판.
 Western marck. (1921). *History of Human Marriage*.